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박혜숙

국문초록

이 글은 여성의 자기서사적 글쓰기 양식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여성의 자기서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을 한국여성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았다.

주변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을 문제삼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비제도권문학이나 비주류적 문학장르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여성의 다양한 자기서사적 글쓰기 양식을 '자기서사'로 확고하게 개념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기서사'는 화자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회고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는 단일한 장르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그런데 자기서사에서 '사실' 혹은 '진실'이란 작자에 의해 그렇게 간주되고 주장되며 재구성된 것에 불과하며, 자기서사에 진술된 '자기'라는 것도 작자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 내지는 '기억하고 싶은 자기', '남에게 말할만한 자기'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자기서사에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종종 의 허구가 개입되기 마련인바, 자기서사 연구는 사실 자체보다 '사실과 허구' 내지는 '진실 혹은 거짓말'의 복잡한 연관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서사는 여성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여성 특유의 허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외에도 남성의 자기서사와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자기'의 존재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난 여성적 정체성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국문학사에서 구술 여성자기서사는 어떤 의의를 갖는가, 그리고 노동여성의 자기서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등등 여성의 자기서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간략한 해답을 모색해 보았다.

핵심어: 자기서사, 여성의 자기서사, 여성적 정체성, 구술 여성자기서사, 노동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자기서사 연구의 의의¹⁾

근대에 이르러 소설은 제도권 문학의 중심장르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한국 근대소설이 여성이나 비지식인계층 혹은 다양한 소수집단의 세계경험을 온전하게 재현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근대 한국에서 소설장르는 상당정도로 성별화(젠더화)된 매체는 아니었는가? 주변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경험은 소설보다는 여타의 주변적 글쓰기양식을 통해 재현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중세 조선의 제도권문학은 한문학이었고, 한문학의 각 장르는 남성성별화된 매체였다고 할 수 있다. 주변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을 문제삼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비제도권 문학이나 비주류적 문학장르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문학연구는 당연시되어온 기존의 장르서열을 허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하지 않을까?

허구로서의 소설을 문학장르의 정점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문학관습은 자전적 소설, 자서전, 일기, 편지, 수필 등의 다양한 서사양식을 주변적 문학이나 하위문학으로 서열화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양식들이야말로

1) 이 글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전반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들을 개괄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와 관련된 필자의 기존의 논문들, 그리고 앞으로 씌어질 논문들과 일부 논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주변적 존재, 소외된 존재의 자기표현이나 비주류적 경험의 재현가능성을 내포한 매체들은 혹 아닌가? 특히 이들 양식을 매개로 한 다양한 자기서사들은 개별적인 정치, 사회, 역사 상황에 있는 주체들이 구성되고 표현되며 재생산되는 장(場)이 아닌가? 자기서사는 주변적 경험의 재현을 통해 문학 및 현실영역에서의 중심-주변 관계의 해체에 기여할 가능성을 혹 내포하지는 않는가? 때로는 지배적인 권력관계나 문화현상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소수집단의 호소와 저항의 무기로 역할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자전적 서사', '자전적 진술', '자서전적 진술', '자전적 글쓰기' 등의 다양한 용어를 조정, 통일하여 '자기서사'로 확고하게 개념화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한다.

여성자기서사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제기하게 한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성적 정체성은 지배적인 관습이나 규범과 어떻게 타협하거나 갈등하는가? 그러한 여성적 정체성은 개인적 기질이나 상황, 체험, 사회정치적 상황, 작자의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성적 정체성은 중세와 중세해체, 근대, 현대에서 각기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남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정체성은 각 시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국여성의 개인적 삶과 경험에 있어서 근, 현대성은 어떻게 구성되고 개별의미화되고 있는가? 진정한 여성주체란 어떤 것인가?

특히 한국여성들은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도 유난히 강고한 유교적 여성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받았으며, 식민지적 근대와 분단, 신식민주의적 군사독재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세계사적 경험을 거친 한국여성들의 자기서사는 서구 백인 남성중심의 자서전 연구에 의문을 제기할 뿐 아니라, 1970, 80년대 이래 탈계몽주의적, 페미니스트적, 탈식민주의적 학문경향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서구학계의 자서전에 대한 다대한 관심 및 연구와 소통함으로써 그를 보완하는 역할도 일정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 자기서사의 개념

이야기(story)가 있고 화자(teller)가 있는 모든 문학 텍스트를 서사(narrative)라고 한다면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텍스트를 일단 '자기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지 않다면 '자기서사'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사실 자체와 글로 씌어진 사실은 별개의 것이다. 글로 씌어진 것은 작자에 의해 주장되고, 구성된 사실일 뿐, 사실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자신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자신'에 관한 사실보다 외적 세계에 관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 진술도 자기서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기행문이나 혹은 작자가 견문한 사건에 관한 기록은 자기서사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일 따름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관한 사실의 진술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상태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자기서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서정시도 자기서사라고 하기 어렵다.

'자기자신'에 관한 사실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나의 존재와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갖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기서사는 자신의 일생이나 혹은 특정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서 회고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자기서사'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회고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는 단일한 장르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오늘날의 자서전은 '자기서사'의 대표적 유형이다. 서구의 근대적 자서전으로서의 'autobiography'는 서구에서 그 용어와 양식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성립되었고, 20세기 전반에 동아시아문학에 도입되었다.

20세기 전반에 ‘autobiography’의 역어로서 ‘자전’ 혹은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으며, 서구의 근대적 자서전의 영향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일본, 중국, 한국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자서전이 등장하였다.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서전 작가들은 대체로 일찌기 서구문화를 수용하면서 근대적 자아에 눈뜬 사람들이 많았으며, 다분히 서구의 자서전 양식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글을 썼다는 특징이 있다. 20세기의 동아시아에서 자서전은 서구적 양식으로 인지되면서 자기서사의 대표적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본격적인 자서전만이 아니라 편지, 일기, 수필 등 다양한 형식의 자기서사가 존재한다. 그러한 글쓰기가 모두 전형적인 자서전이 갖는 특징들을 갖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적인 자서전 형식이 수입되기 이전부터 동아시아문학에는 사마천의 「태사공자서」 이래 다양한 자기서사의 글쓰기가 존재했다. 따라서 서구의 ‘autobiography’의 역어로서의 ‘자서전’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자기서사의 글쓰기를 포괄하는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자서전’에서 파생된 ‘자서전적 진술’, ‘자전적 서술’, ‘자전적 서사’ 등의 용어보다는 ‘자기서사’라는 용어가 더 포괄적이면서도 간결하다고 본다.

3. 자기서사에 있어서 사실과 허구

앞서 ‘자기서사’란 자기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는 것이라 말할 바 있다. 자기서사는 대개 과거사를 사실 그대로 진술한다는 암묵적인 약속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라는 것은 실제에 있어 매우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다. 자기서사에서 ‘사실’ 혹은 ‘진실’이란 작자에 의해 그렇게 간주되고 주장되며 재구성된 것에 불과하다.

우선 자기서사는 과거와 관련한 기억행위라는 점에서 망각, 착각, 무의식적인 누락이 불가피하며 그런 점에서 사실 자체와는 거리가 있다. 자기서사에 진술된 '자기'는 글쓰는 당시 작자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 내지는 작자에 의해 '회상된 자기'에 불과하다. 과거 또한 과거 자체가 아니며 작자가 글쓰는 당시의 시점에서 기억하거나 회상하는 과거일 뿐이다. 독자가 글을 읽으며 상상하는 '작자의 과거'는 글쓰기를 완료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 그 어딘가에 있거나 혹은 세상을 떠나버린 작자 자신에게조차도 이미 동일한 과거가 아니다.

또한 자기서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일정한 답을 내리려는 시도에서 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나 자기 삶에 관한 특정한 이미지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신을 재구성하고 형상화하려는 의도가 불가피하게 개입되곤 한다. 의식적이든 반(半)무의식적이든 간에 ‘남에게 말할만한 자기’, 혹은 ‘기억하고 싶은 자기’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것은 강조하거나 확대하여 기록하며, 부합되지 않는 것은 소홀히 취급하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어떤 자기서사에도 상당정도 자기도취나 환상, 자기기만, 자기합리화나 정당화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서사에 재현된 ‘자기’는 작자가 설정한 ‘자신의 이미지’에 불과하며, 작자의 자기검열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재구성된 ‘자신과 관련된 사실의 일부’일 따름이다.

또한 자기서사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가치’와 ‘의미’의 문제가 개입한다. 가치나 의미는 선택과 배제, 위계화와 서열화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작자가 설정한 가치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리고 작자가 지배담론과 맺는 관계에 따라 자기재현은 다른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과거사와 관련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나 의미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바, 자기서사에 재현된 과거는 작자가 설정한 가치와 의미의 위계구조에 따라 재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서사에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종종 의 허구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기서사 연구는 사실 자체보다는 ‘사실과 허구’ 내지 ‘진실 혹은 거짓말’의 복잡한 연관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상은 자기서사적 글쓰기 일반에 해당되는 언급이겠지만,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서사는 주변적 존재임을 면하기 어려운 여성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여성 특유의 허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 특유의 허구는 페미니즘 사상가들에 의해 자주 지적되어왔다. 시몬느 보봐르는 “주인의 변덕에 의존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변함없는 미소와 정체 모를 태연함으로 주인을 대하는 것을 배워왔다.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 처럼 여성들은 고의적으로 가장한다”고 표현한바 있으며, 에드리엔느 리치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하기를 강요받는 모든 ‘무력한 사람들’ 처럼 여성들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혹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순간을 잊어버리는 행위를 감행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가부장적 사회가 규정한 여성의 정체성이나 여성적 속성은 여성의 주체성을 배제한 허구적인 것인바, 개별 여성은 성별담론을 내면화하고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가장(假裝)함으로써 허구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허구가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내면화되고 관철되는가 혹은 균열과 파탄을 보이는가 하는 점을 포착하는 것은 진정한 여성주체의 모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서 기생의 자기서사를 잠깐 언급하기로 하자. 조선시대 기생의 자기서사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생 명선 자술가」와 「군산월애원가」가 있다. 「기생명선자술가」가 일종의 성공의 서사라면, 「군산월애원가」는 일종의 불행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어려서부터 기생수업을 받았으며 우연히 한 양반남성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선의 경우는 곧 남자와 이별을 하게되었고 임신한 몸으로 절개를 지키며 기다린 보람이 있어 아들을 낳은 얼마 후, 그 남자의 첩이 되어 서울로 가게 되었다. 명선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회고하며, 그 원인을 평소 자신이 비록 신분

은 기생이지만 마음이나 행동만은 절개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군산월은 남자의 약속을 믿고 그를 섬겼으나 끝내는 버림받고 말았다. 군산월도 역시 스스로를 신분은 비록 기생이지만 절개를 지키는 올곧은 여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남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신분만 기생이었지 행동은 기생이 아니었다고 자부하였다. 군산월은 자신의 삶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원인을 남자의 배신과 그로 인해 일부종사(一夫從事)가 좌절된 데서 찾고 있다.

기생은 애초 남녀유별이나 삼종지도의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존재였다. 하지만 「기생명선자술가」든 「군산월애원가」든 자신을 절개있는 여성으로 이미지화하였으며, 자신의 과거상황이나 행동을 모두 ‘절개’라는 각도에서 조명하고 의미화하였다. 따라서 여타의 측면은 자기서사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두 텍스트의 자기에 관한 진술은 작자의 실제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작자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자기, 혹은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자기이며, 그런 점에서 작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한 자기에 다름 아니다.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실’일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다소간의 사실왜곡이 당연히 존재하며, 그런만큼 작자에 의한 허구가 개입되어 있다. 그들의 사랑에 나름의 진실성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절개에는 신분상승과 생존전략으로서의 측면도 다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기생들의 신분상승 욕구는 생존의 욕구인 동시에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인간적 욕구와도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욕구를 남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신분상승의 강한 욕구를 가졌음은 여러 곳의 틈새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자신이나 자신의 과거에 관한 모든 사실을 ‘절개’라는 틀에 맞추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두 텍스트에서 ‘절개’란 유교적 여성이데올로기가 개별여성에게 요구한 이념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4. 남성의 자기서사와 여성의 자기서사

일반적으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주변적 존재이므로 여성의 자기서사는 남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특징들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특정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삼는 일은 항상 여성 일반의 존재방식에 대한 물음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특정 남성은 남성 일반과 연관짓지 않고도 자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 남성은 자신을 한 사람의 독특한 인간으로 이해하거나 인간 일반의 특수한 표현으로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여성은 여성집단의 일원으로 규정되는 것을 모면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여성은 항상 여성 일반의 대표나 범례나 예외로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삼는 일은 필연적으로 당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적 정체성 일반을 문제삼는 일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이 자기자신이나 자신의 삶을 문제삼는 방식이 어떻게 같거나 다르며, 성별상황이나 정체성이 각 역사시기마다 어떻게 연관되거나 갈등하고 대립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자아의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흔히 보편적 자아라고 간주되어온 것은 기실 남성적 자아에 불과한 까닭이다. 여기서는 하나의 실례(實例)로서 중세 남성의 자기서사와 여성의 자기서사의 차이를 일별해보기로 한다.

중세 남성의 자기서사는 고려중기 이후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창작되었다. 고려와 조선의 문학의 주류는 한문학이었기에 남성의 자기서사 역시 한문학의 장르인 '자전', '자서', '자찬묘지명' 등을 통해 주로 창작되었다. 자전의 문학적 관습은 자기자신에 관해 서술하되 마치 자신이 아닌 제3의 인물에 대해 서술하듯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었다. 자전의 작자는 스스로를 '나'라고 지칭하지 않고 어딘가의 막연한 장소에 존재하며 구체적인 가계(家系)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제3자처럼 서술하곤 한다. 또한 자전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을 계기적으로 서술하

는 측면은 미약한 반면, 자신의 생에 대한 태도나 인간적 특질을 묘사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전의 특질 이면에는 자신을 일반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 간주하되, 그를 하나의 특수한 인간타입으로 호명하고 그에 대해 해명하거나 혹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자전 특유의 작가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자서'와 '자찬묘지명'은 자신의 가계를 상세히 서술한 다음, 관직생활이나 학문과 관련된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 '자서'와 '자찬묘지명'은 작자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은 '개인의 공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자서와 자찬묘지명의 작자는 자신을 특정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파악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화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중세 한국남성의 자기서사가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문제삼거나 혹은 공적이고도 사회적인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여성의 자기서사와는 사뭇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여성의 자기서사는 조선후기에 비로소 등장하였다. 조선의 여성이 한문으로 자기서사를 남긴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조선의 문자언어는 한자와 한글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한자는 남성지배층의 언어로 정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한문학의 장르를 통해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다. 여성들의 자기서사는 편지, 가사, 구어체의 산문 등 다양한 한글글쓰기 양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세전 근대전 동양이전 서양이전 남성의 자기서사가 작자의 공적이고 현실적인 업적과 연관되거나 혹은 자신의 사상적, 종교적 입장이나 편력과 관계된 경우가 많다면, 중세여성의 자기서사는 작자의 공적이고 현실적인 업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더구나 사상적이거나 학문적인 편력과도 전혀 무관하다. 중세여성의 자기서사에는 공적인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세여성이 공적세계와는 단절된 '사적인 존재'이며, '외간'과는 엄격히 분리된 가족내적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여성의 자기서사가 완전히 사적인 개인의 개별서사인 것만도 아

니다.

중세의 남성은 자신을 가문의 일원으로 간주하면서도 한편으로 상당정도 가족과 구별되는 개별적 존재로 파악한 데 비해, 중세의 여성은 철저히 가족과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했다. 여성들은 삼종지도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자신을 누군가의 딸, 아내 혹은 며느리, 어머니로서 규정했다. 따라서 중세여성 개인의 인생은 남성가족의 인생과 불가분리로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세여성의 자기서사는 가족서사와 착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세남성의 자기서사는 어머니나 아내, 혹은 자녀에 관해서는 간단한 그 신분만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의 서사에서 그들은 성이나 이름, 혹은 생물연대 따위로 간단히 요약되는 존재이다. 적어도 자기서사의 텍스트 안에서는 남성작자의 인생에 대해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존재이다. 반면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친정부모나 남편 혹은 아들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큰 비중과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자기’나 ‘자기의 인생’은 가족구성원이나 그들의 인생을 군데군데 변형시켜 모자이크한 어떤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한중록」이나 「인목대비술회문」과 같은 왕실여성의 자기서사에는 가족서사만이 아니라 정치서사가 착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가족과 관련된 한에서의 정치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세여성의 자기서사는 공적서사를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개별서사도 결여되어 있다. 여성의 자기서사는 가족서사와 착종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다. 여성의 자기서사는 가족내적 역할, 다시말해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고 있는 바, 성별정체성이 개별정체성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여성적 정체성의 유형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적 정체성은 대개 한 사회의 지배적인 여성담론에 의해 틀지어지고 고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여성의 정체성이 얼마나 안정된 것인가에는 개인차가 상당히 존재한다. 한 개인의 여성적 정체성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여성이 지배적인 여성담론을 학습하고 수용하며 그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일정한 방식으로 억압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관상 안정된 여성적 정체성은 한 여성의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억압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억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여성적 정체성은 혼란되거나 균열과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특정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적 정체성이 파탄과 균열을 보이는 지점은 대안적인 여성적 정체성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지점이기도 하다. 문학텍스트는 여성과 남성에 관한 성별의미와 성별정체성의 담론이 형성되고 재생산 되는 장이면서 동시에 지배적인 성별담론에 대한 저항담론이 생성되는 장이기도 하다. 문학텍스트 중에서도 자기서사는 특히 정체성이 문제시 되는 텍스트이다.

19세기 양반여성 자기서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귀록」과 「규한록」이 있다. 두 작품은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의 대조적 면모를 보여주는 일례가 된다. 「조귀록」의 조씨부인과 「규한록」의 이씨부인은 양반가문의 외이들에게 시집가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었다. 삼종지도의 윤리가 지배적 여성담론이었던 조선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인생은 실패가 예정된 삶이었다. 남편을 따라 자결하는 것만이 삼종지도를 지킴으로써 예정된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두 사람은 애초 자결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스스로를 종부로서 재의미화함으로써 살아남았다. 시부모나 가문을 위해 헌신하는 종부로서의 삶은 삼종지도적 삶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씨부인과 이씨부인은 유사한 삶의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여성적 정체성

과 자기서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조씨부인의 자기정체성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조씨부인은 스스로를 철저히 친정부모의 딸과 남편의 아내로서 규정하고 그러한 자기정체성에 입각하여 자기서사를 하였다. '삼종지도'의 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그런만큼 안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조씨부인의 정체성에도 불안한 틈새는 있다. 남편을 따라 죽는 것과 종부로서 살아남는 것, 그 어느 쪽도 결코 떳떳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고 조씨부인은 평생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씨부인의 죄의식은 삼종지도에 입각한 여성적 정체성의 억압성이 현현되는 틈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씨부인의 여성적 정체성은 상당히 혼란되고 분열되어 있다. 이씨부인도 남편의 죽음 후 스스로를 '종부'로서 재의미화하였다. 하지만 종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어려웠고 권리는 미미했으며, 존경과 인정은 받지 못했고 갈등과 비난이 잇달았다. 경제적 문제와 양자문제로 시삼촌이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종들마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며, 문중의 평판도 좋지 않아 이씨부인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애초 이씨부인이 기대했던 바, 성공적인 종부노릇은 불가능하였다. 이씨부인은 자신의 실패원인을 해명함으로써 내면적·심리적 차원에서 자기를 정당화하고자 했으나 현실적 자아와 규범적 자아,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 사이에 스스로도 혼란되고 갈등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씨부인은 자신의 존재와 경험을 새롭게 질서짓고 의미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정체성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삼종지도적 여성적 정체성 외에 어떤 대안도 이씨부인에게는 가능하지 않았고 이씨부인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현실적으로 종가의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조씨부인의 경우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여성적 정체성이 타자적 정체성에 불과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면, 이씨부인의 경우는 타자적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적 정체성의 모순과 불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귀록』의 조씨부인이 억압을 승인하고 내면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규한록』의 이씨부인은 외부로부터 부가된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압을 토로하고 그에 저항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다. 조씨부인이 비교적 잘 억압된 여성의 내면을 표현한 경우라면 이씨부인은 억압에 차질이 야기됨으로써 분열되고 히스테릭한 여성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조귀록』이 절제되거나 잘 억압된 수동적 텍스트라면 『규한록』은 절제되지 못하고 수동과 능동을 오가는 분열된 텍스트이다. 『조귀록』이 비교적 단일한 하나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다면 『규한록』은 이중적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귀록』은 삼중지도의 여성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규한록』은 두 개의 상이한 목소리가 상호작용함으로써 텍스트는 단일한 의미로 고정되기 어려우며 나아가서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의미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6. 구술 여성자기서사의 의의

조선후기에 이르러 양반여성들 사이에는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지만, 대부분의 평민여성들은 여전히 문자문화의 밖에 존재하였다. 또한 근대에 이르러 여성의 문자해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구여성이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하층여성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삶을 글로 쓴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침묵하는 집단,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야말로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이 이중삼중으로 현현되는 장일 수 있다. 그들 스스로 말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그들의 말하기를 돕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평민여성 및 근대의 구여성과 하층여성도 나름의 구술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삶을 일상적 언어로 표현하곤 했

다. 그러나 여성들의 **구술문화**는 **성별·계층·지역**에 있어 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것이었다. 문자문화가 주류로 자리잡은 사회에서 그들의 구술은 침묵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구술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화됨으로써 **주류문화에 의해 무시되거나 배제**되어온 여성적 경험의 존재를 환기하는 -불러서 일으켜세우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선여성의 구술 자기서사가 기록된 것으로는 「**텐동어미화전기**」라는 장편가사가 있다. 이 작품은 화전가류 규방가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텐동어미라는 한 하층여성의 인생유전을 다루고 있다. 텐동어미의 자기서사는 원래 여성들만의 화전놀이 현장에서 구술된 것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으리라 추정되는 한 양반여성이 텐동어미의 구술을 자신의 화전가에 액자형식으로 삽입하였다. 이 작품은 여성적 고난을 통해 마침내는 무애자재의 경지에 도달한 한 하층여성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지만 텐동어미의 인생에서, 구술의 현장에서, 텍스트의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가난한 여성과 다른 가난한 여성, 고통받는 여성과 고통을 겪어낸 여성, 말하는 여성과 글쓰는 여성, 하층여성과 상층여성 사이의 다양한 여성연대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한편 20세기에 이르러 남성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근대적 영역으로 편입되어 간데 반해,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적 상황과 삶을 강요받았다. 남성들은 신남성과 구남성의 구별이 없는 데 반해, 여성들은 신여성과 구여성으로 나누어져 서로를 타자로 **간주하도록** 조장되었다. 신여성은 중세적 여성담론에 의해 **비난당하는**가 하면 구 여성은 근대적 여성담론에 의해 억압받기 일수였다. 한반도의 여성은 신여성과 구여성으로 분리되어, 가부장제의 필요에 따라 한 쪽 여성은 다른 쪽 여성을 비난하는 근거로 동원되곤 하였다. 그런데 신여성들은 급속하게 문자문화 및 출판문화의 영역에 편입됨으로써 자기표현의 영역을 넓혀간 데 반해, 다수의 구여성들은 여전히 **구술문화에** 머물러 있었다. 물론 20세기에도 구여성들의 규

방가사 창작은 계속되었고, 이들 작품은 구여성의 근대체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규방가사는 주로 영남지방 반가여성들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되었으며, 나름의 문화적 관습으로 인한 제한성이 있었다. 규방가사 외에도 기출판된 몇몇 구여성의 일기나 자서전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여성은 글쓰는 행위와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려할 때, 구여성의 구술서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20세기를 살아간 구여성의 다양한 삶은 여성사나 여성문학사에서 도 주목되지 못했다. 구여성의 근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복원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 198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 ‘뿌리깊은 나무’에서 출간된 일련의 민중자서전 시리즈이다. 이 민중자서전 시리즈 20편 중에는 9편의 여성 구술 자기서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의 반가여성(『이 “계동마님” 이 먹은 여든살, 이규숙 구술, 김연옥 편집), 서울의 서민여성(『밥해먹으면 바느질허라 바느질 아니쁜 빨래허라, 한상숙 구술, 목수현 편집), 지방의 반가여성(『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 와, 성춘식 구술, 신경란 편집), 지방의 서민여성(『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메고, 김점호 구술, 유시주 편집 ;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 전동례 구술, 김원석 편집 ; 『시방은 안해, 강강술래럴 안해, 최소심 구술, 강운주 편집), 화전민(『여보, 우리는 뒷간백에 갔다온 데가 없어, 이광용 구술, 강운주 편집), 단골무(『“에이 짠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랴요, 채정례 구술, 박주언 편집), 예술가(『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거든(함동정월 구술, 김명곤·김해숙 편집)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어, 근대적 상황의 급속한 전개 속에서 이른바 구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그들 자신의 생생한 입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들의 구술서사를 일별하면 근대가 구여성에게 제공한 것은 대개는 전통시대와 다를 바 없거나 혹은 더욱 가혹한 삶의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구여성들은 교회나 야학, 남편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종류의 경제활동 등을 통해 근대를 접하고 서서히 근대적 상황에 편입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난한 여성들의 경우, 자본제적 경제법칙이 일상에 침투 확산됨으로써 가정살림과 자녀교육에 더욱 애로를 겪으며 가족부양을 위한 더욱 고달픈 노동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개 자녀들에게 근대적 학교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근대로 진입시켰고, 자녀들을 통해 스스로도 근대를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생 구여성으로 남아있었다. 이들 자료를 여성의 자기서사로서 적극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정 출판사의 기획의 소산이라는 점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구술 자기서사를 한 여성들은 구여성들이고, 그들의 구술을 듣고 편집 기록한 사람들은 후속세대의 지식인 여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상이한 세대와 상이한 계층 여성들의 조우와 협조, 상호이해의 산물이라는 점 또한 큰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구여성 25인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강명혜 지음, 『사람의 여자』(다지리, 2000)도 있지만, 구술과 저술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텍스트적 한계가 있다.

7. 노동여성의 자기서사

여성의 자기서사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노동 여성의 자기서사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학교교육을 받게 된 오늘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여성들의 글쓰기에 어떤 제약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글쓰기는 지식인 여성의 전유물로 되어있고, 노동여성이나 빈민여성이 자기서사의 글을 쓰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출판문화와 관행이 비지식인 여성을 소외하거나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여성은 식민지 시대에 이미 등장하였다. 이들은 학교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근대적 노동과정에 투입됨으로써 근대적 영역에 편입되었다. 이

들은 구여성도 아니었지만, 신여성이라 간주되지도 않았다. 여전히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중세적인 여성억압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론 식민지 자본제적 노동모순의 억압이 가중되었다. 식민지시대 노동여성의 자기서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의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여성이 글쓰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가부장적 개발독재가 여성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창출한 사회경제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70, 8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성장 신화, 박정희 신화의 물질적인 토대노릇을 하였다. 이들은 대개 농촌 출신으로서 10대 후반, 20대 전반의 어린 여성들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야학이나 소모임을 통해 글쓰기를 익혔다. 이들의 글쓰기는 주류문학의 장르적 관습으로는 포괄되지 않을 뿐더러, 생활과 문학의 불가분리적 연관이 전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생활글'이나 '수기'라고 호명되었다. 이들의 글쓰기는 초보적인 노동자의식에 바탕한 단편적인 일기나 산문에서부터 고도로 각성된 노동자의식에 바탕한 노동수기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편폭이 다양하다. 1980년대 노동자문학의 실질적 저변을 확인케 하는 역사적 자료집인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청년사, 1980) 및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돌베개, 1986)에는 일기나 수필 형식을 빈 여성노동자의 자기서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순희 「가로등 밑에서 공부할까」(1976년 10월에서 1978년 11월에 걸친 약 2년간의 일기), 오원희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공장에」(78년1월에서 79년7월까지의 일기), 장안나 「나의 이력서」, 김경숙 「나의 발자취」, 이민희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유순남 「나의 이야기」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은 원래 야학의 문집이나 노동조합회보, 노동자 소모임의 문집 등에 수록되었던 것을 재수록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글이 비교적 단편이라면, 장편으로는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형성사, 1982), 석정남 「공장의 불빛」(일월서각, 1984), 장남수 「빼앗긴 일터」(창작과비평사, 1984)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작품은 동일방직이나 YH

등 참여한 여성노동투쟁의 현장기록인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성장의 서사이기도 하다.

이들 작품은 1980년대 노동문학의 성과로 언급되곤 했지만, 여성노동자 문학으로서 재정위(再定位) 되어야 마땅하다. 이들 작품에 재현된 경험은 분명 여성성별화된 경험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족공간을 떠나 노동자가 되는 과정, 노동현장에서의 장시간 저임금노동과 종종 억압, 노동투쟁과정에서의 다양한 탄압에는 어김없이 자본제적 가부장제 성별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 이들의 자기서사는 근대적 개아의 각성이 학교교육이나 독서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과정과 노동투쟁에서 형성된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 독자적 가치를 갖는다. 이들 작품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성장의 서사가 지식인여성의 성장의 서사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남성의 성장의 서사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들이 이후 어떻게 현대적 삶의 조건에 재편되어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작은 책』에 장기 연재되고 있는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추송례의 「어김없이 봄은 오는가」는 1980년대 노동여성의 자기서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8. 그외의 문제들

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비교문학적 연구는 매우 광범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발표자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강 언급하는 데 그쳤지만, 그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몇 가지만 덧붙인다.

①한국여성의 자기서사에 있어서 전통과 근대:

중세와 근대에 있어 여성적 자아의 존재양상과 글쓰기의 상황은 시뭇 달

랐다. 전통시대에는 여성이 단지 가족 내적 존재로만 규정되었으며, 여성들의 공적인 글쓰기는 거의 금기시되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사적인 글쓰기만이 허용되었을 뿐이었다. 반면 근대에는 여성이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으며, 학교교육과 근대적 출판문화로 말미암아 여성이 공적인 글쓰기의 주체로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시대와 근대에 있어 여성의 존재조건과 글쓰기상황의 차이가 여성의 자기서사의 동기, 내용 및 성격, 텍스트의 유통 및 작가-독자 관계 등에 있어 어떤 차이를 낳았는가?

그리고 신여성과 구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적 자아의 근대로의 이행은 어떻게 상이하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에 어떤 난점이나 문제들이 있었는가? 남성적 자아의 근대로의 이행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근대는 식민지적 근대라는 왜곡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던바, 그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여성적 자아의 근대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가?

②한국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역사적 연구:

조선후기에 여성의 자기서사가 등장한 이래, 식민지적 근대, 분단, 신식민지적 군사독재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의 자기서사는 꾸준히 산출되었고 더욱 양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되고 있기도 하다(「현귀인 할머니의 73년」). 여성에 관한 담론들 및 여성의 현실적, 내면적 상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거나 혹은 유지되었으며, 그것이 자기서사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자기서사의 글쓰기는 특정 사회상황이나 특정 여성담론과 어떻게 연관되면서 금지되거나 권장되거나 혹은 양산되는가?

아울러 1920,30년대 신여성 작가들 이래로 1980년대 이후 박완서, 김형경, 신경숙 등으로 이어지는 여성작가의 자전적 소설에 대한 별도의 역사적 연구와 재평가가 필요하다. 1950, 60년대 대표적인 여성작가들은 대개 자전적 소설을 쓰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글로 씌어진 텍스트와 작가의 현실텍스트를 넘나

들면서 소설과 여성자기서사의 관계, 여성의 글쓰기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 여성적 자아와 소설가로서의 자아가 관계맺는 방식, 여성소설가에게 있어서 '사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래 여성자서전의 양산과 그 대중적 인기현상에 대한 문화적 연구 및 여성주의적 혹은 여성해방론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비판도 필요하다.

③동아시아 여성자기서사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동아시아 삼국 모두에서 근대 여성자기서사는 서구적 근대자서전의 영향으로 20세기 전반 이래 성행하였다. 상이한 근대화의 길을 걸어간 삼국의 여성에게 있어 근대성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여성지식인만이 아니라 노동여성의 자기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 여성노동자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인 다카이 도시의 자기서사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도 번역 소개된 바 있었다(『나의 여공애사』, 백산서당, 1984). 여성노동자문학은 주변문학의 주변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학연구에서 이중으로 소외되어 있다. 20세기 동아시아 여성노동자의 자기서사 텍스트를 발굴하고, 상호비교함으로써 자본제적 가부장제의 여성억압이 각국에서 어떻게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관철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동아시아 여성자기서사의 역사적 비교연구도 흥미롭다. 동아시아 중세에서 다수 여성들이 점차 한문글쓰기의 영역을 넓혀간 것은 그것대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문글쓰기는 그 견고한 남성적 문학관습으로 인해 여성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재현하는 데는 여러가지 난점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중국여성들이 여성들만의 문자인 '누슈(女書)'를 고안하고, 한국여성들이 "암글"이라 멸시되던 한글을 적극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일본 여성이 히라가나 문학을 발전시킨 사실 등은 중세 동아시아에서 한자나 한문이 남성성별화된 매체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글여성문학의 발전은 세계여성문학의 관점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 특히 조선후기에 다량 창작 유통된 규방가는 그 문학적 완성

도에 있어 내부적 편차가 크긴 하지만,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지않은 평범한 여성들이 대대적으로 글쓰기를 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규방가사 중에서도 특히 탄식가류 규방가사는 여성의 자기서사의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세일본 여성문학도 주목된다. 헤이안(平安)조에 이미 『가게로닛끼(蜻蛉日記)』, 『무라사키시키부닛끼(紫式部日記)』, 『이즈미시키부닛끼(和泉式部日記)』, 『사라시나닛끼(更級日記)』를 비롯한 여성들의 자기서사가 ‘일기’ 형식으로 다수 산출되었던바, 헤이안조 일본여성의 자기서사는 동아시아문학 뿐 아니라 세계문학사에서도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자기서사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는 자국어 표기수단인 가나가 일찍부터 사용되었다는 점, 일본의 일기문학은 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 많은 재능있는 여성들이 헤이안조의 궁정에 모였었다는 점, 헤이안조 궁정에서의 여성의 상황이 동양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자유롭고 해방적인 면이 있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후 근대 이전까지 일본여성의 자기서사의 전통은 지속되지 못했다.

동아시아 각국의 여성 자기서사의 공시적 통시적 비교연구는 나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남을 통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도정이며, 나와 남이 소통함으로써 상호상승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나이가 서로 다른 특수한 사회역사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어떻게 보편적 여성억압에 고통을 겪었는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편적인 여성적 창조성을 발현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필자 : 인하대 교수

Abstract

Several Issues on the Self-Narratives by Women

Park, Hye-sook

When we deal with women's experiences and feminine identity represented in the literary texts, we need to take interest in the writing mode of self-narrative by women. In this paper, I emphasized the importance and meaningfulness of self-narratives by women, and presented several important issues on the study of self-narratives by women.

Self-narrative is a kind of writing mode in which teller tells one's own story on condition that it is real, and reflects one's life as a whole, and asks its meaning. But 'reality' or 'truth' in self-narrative is something which is insisted and constructed as it is by writer. And 'I' which is represented in the text is nothing but 'memorable I' or 'tellable I'. So various kind of fiction or falsehoo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could be intervened in the text of self-narratives. Therefore we need to keep close watch on the relation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or the relations between truth and falsehood in self-narratives. Moreover in male-oriented society, self-narrative by women could have fiction peculiar to women.

Besides I presented following issues, and tried to describe the answers briefly. The differences between self-narrative by men and by women. Various aspects of feminine identities represented in the self-

narrative texts. The importance of oral self-narratives by women, The meaning of working women's self-narratives,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e Korean women's self-narratives, and etc.